

한총, 통일선교 전문사역자 본격 양성

북한선교 '대비'

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통일선교대학(학장 양영식 박사)이 전국 5백여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일 후 북한선교를 본격 대비한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 내에 북한 선교 기류가 한층 강하게 형성되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개최한 한기총 통일선교대학 이사장 이, 취임감사예배에서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 김성근 목사(풍성교회)는 이같이 밝혔다.

김성근 이사장은 앞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무남개산교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구체적인 북한 복음화 사역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1998년 통일 선교를 위한 준비된 일꾼 양성을 위해 통일선교대학을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통일선교대학의 전문교육과정은 북한의 실상, 남북한 통일정책, 국제환경의 진단, 중국 비전 트립 등 구체적인 통일선교전략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기로서의 지식을 습득하도록 훈련하고 있다.

지난 12년간 일반과정 22기, 신화과정 7기 등 총 2천 여명의 북한 선교 전문기사를 배출했으며, 이들 중 1백 여명은 대북통일선교 현장과 유관기관에서 사역자로 헌신 중이다.

한편 이날 이, 취임예배는 임현만 목사(교화처장)의 사회로 시작했으며, 정연택 장로(한기총 사무총장)의 대표기도, 하대욱 장로(통일선교대학 이사)의 성경봉독, 무남개산교회의 특별찬양에 이어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신다'란 제하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북한 동포의 영혼구원과 민족복음화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한국교회의 사명"이라며서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로 남북통일 선교사 송환을 위해 한국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광선 대표회장의 공로패 및 추대패 전달과 양병희 전임 이사장의 이임사, 신임 김성근 이사장의 취임사, 김요셉 목사(한기총 공동회장)와 박완신 박사(세계사이버대학장)의 축사, 김운태 총무(한기총의 격려사, 양영식 박사(학장)의 학교소개, 이만신 목사(한기총 명예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 3·1절 기념예배 드려

(사)세계개혁교회연 등 3개 단체 공동주최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이 사장 양정섭 목사)는 지난 4일 11시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기념관에서 제91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갖고 '교권주의와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21세기의 신령하고 능력있는 목회자로 거듭날 것을 굳게 다짐하고 또한 이를 강력히 실현할 것을 선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세계개혁교회연합회(총재 김권현 목사)와 (사)한국개신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렬 목사)가 연합하여 열린 이번 3·1절 예배는 최옥성 목사(대표회장) 사회로 노종만 목사(예장합동예향총회)의 대표기도, 강대환 목사(예장21C성령총회 총회장)의 성경봉독,

김병섭 목사(예장정통총회)의 색소폰 연주, 김권현 목사의 '환난과 감사'라는 제목의 설교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예장개혁교회총회 부총회장 정광용 목사), '국가와 민족복음화'(예장합동연합총회 증경총회장 이상복 목사),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예장전도총회 증경총회장 이상복 목사), '일본의 회개 추구와 우리 땅 독도 지키기 위하여'(예장합동성명총회 총회장 이병순 목사)라는 제목으로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계속된 예배는 이석주 목사(예장 남북총회 총회장)의 대국민 성명서 선포와 만세삼창, 양정섭 목사의 인사말, 박형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18회 국민조찬기도회 개최, 정치경제회복 기도

정치안정 경제회복을 위한 제18회 국민조찬기도회가 12일 오전 7시 여의도 CCMM빌딩 1층 코스모홀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부흥선교단체총연합회 주최하고 국민비전부흥사회의회, 국민조찬기도회가 주관한 이번 기도회에서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회복(인홍식 목사) ▲국도수호 및 평화적 통일(박병주 목사) ▲한국교회부흥과 성장(김형섭 목사) ▲국부흥의 성사(임재수 목사) ▲국민일보의 성장과 발전(김정원 목사) ▲세계선교(조식개오 준목)를 위해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은 국가의 정체성을 충분히 세워야 하고 도덕적 경신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합심하여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당국은 국제 사회에서 스스로 고립되는 위험과 파행된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간 화해의 지리로 나와 민족으로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의 목회자 및 부흥사들은 침체된 교회의 부흥을 타개하기위해 생명을 다하는 헌신적인 복음전파와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한제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박만규 목사의 기도, 오범열 목사의 설교가 진행됐다.

국부흥 대표회장 고충진 목사는 "한국교회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앞당기기 위해 교회의 부흥, 선교의 확대, 사랑실천운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고 목사는 또한 "세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라며 "국민조찬기도회로 모이는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가, 한국교회를 위해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앞당기기 위해 부흥선교의 확대, 사랑실천운동 강화, 국민일보 홍보를 더욱 활성화시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부흥사답게 활동할 수 있는 길 열겠다"

기감 중앙연회 부흥단장 김진석 목사 취임



"선배들의 뜻을 이어 부흥사들이 부흥사답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겠다. 이를 위해 부흥사들의 영성 강

화를 기도회, 세미나, 단합대회를 개최하겠다. 또 연회의 60여 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하겠다. 특히 미지립교

회 등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 부흥회를 개최하여 성령의 동력을 제공하겠다."

기감 중앙연회 부흥단 9대 단장에 취임한 김진석 목사는 올 한 해 동안 부흥단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포부를 이렇게 밝히며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다.

기감 중앙연회 부흥단은 지난 11일 신갈교회에서 단원들과 중부연회 목회자, 교단 관계자, 타 단체 부흥사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이길윤 목사(상인부단장)가 사회, 정승희 감독(중앙연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계속된 부흥단 이·취임식에서는 전임단장 이종현 목사의 이임사, 신임단장 김진석 목사의 취임사가 있었으며

박영준 감독의 격려사, 한기부 상임회장 전용범 목사와 감리교부흥단 대표단장 임홍만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또 정승희 감독이 이임하는 이종현 목사에게 공로패를, 취임하는 김진석 목사에게 취임패를 각각 수여했다.

이외에도 협성대 중앙연회동문회와 한기부, 감리교부흥단에서 김진석 목사에게 취임 축하패를 전달했다.

한편 취임식 후 부흥단 첫번째 단합대회가 이전 미란대호실에서 열렸다. 또 부흥단은 매월 기도회, 단합대회, 부흥회를 개최하며 5월에는 교역자 사모 산상성회 9월에는 사모수련회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김진석 목사는 협성대 신학과, 감신대 신학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이천경찰서 경무위원장, 기아대책 이천지역회 부회장, 중앙연회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별기고



무소유 귀신

이원희 목사(광화문교회)

1. 말 달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소유는 없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만 반드시 소유가 있기 마련이다.

일하는 것은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행복과도 직결되어 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가져다주고 사는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준다.

쌀통,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싱크대의 수도꼭지만 보면 옛날 우리 할머니들의 자가 디딜방아, 가마솥, 두레박과 우물물이 생겨나서 할머니들의 고생과 불행에 금방 숨이 탁 막혀 주저앉고 싶은 한기증이 나기도 하지만 실제 행복자수는 손뼉발뼉에 빨간 색칠화장하는 매니큐어로 뽀뽀하고 수다를 떨며 돌아다니는 현대 여성들 보다 월등하게 더 행복한 지주의 생애를 마쳤다는 것이다.

정신적 육체적인 일하는 일 자체에 행복의 끈이 흐르기 때문이다. 임금을 올려달라고 투쟁하는 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저임금국인 중국과 베트남 인도 아프리카 등지로 다 옮겨가 버리고 일자리 흉년으로 일자리 공황상태로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 근로자지옥 같은 불행을 누리느니 당장 개헌을 하여 헌법 제33조 '노조 결성법'을 삭제하여 버리고 일자리 풀이 와서 온 국민이 비록 저임금일자리라도 일 속에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하는 사람에게 무소유는 없고 유소유만 있다.正道 아닌 시키나 도둑질이나 내지,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이룬 부의소유와 총명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상속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로과 상속세 부과나 내지 만 자녀들에게 상속안 물려주기 캠페인도 좋지 않다.

일하는 사람에게 잘 지어주는 소수가 생겨 벌의 끝 소유 덕택에 우리 사람들이 단 꿀을 먹는 이득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소유자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작은 소유자이다. 소유본능을 안고 태어났다. 사람에게 소유본능을 부여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창조와 발전이 없다. 누가 예술에 헌신을 다하여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율리픽에 나가 감명을 안기는 장기를 하겠는가?

2. 책임의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무소유는 동반자살로 이어지는 불행은 초래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시밭길이지만 창조하고 봉사하는 유소유의 길을 걸어야 한다.

2010. 3. 16. 인권준중회

예성 부흥사회, 총재 전유성·대표회장 조석근 목사 취임

예성의 부흥사로 27년의 전통을 이어받아 초심으로 돌아가 섬기는 자세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예성교회연합회(총회장 한양수 목사) 부흥사회는 지난 12일 운수중앙교회에서 전유성 목사 총재 추대와 조석근 목사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대표회장 취임한 조석근 목사는 대표회장으로서의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상임회장 나세웅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강용조 목사(예성 증경총회장)가 '큰 일 맡은 중'이란 제목의 설교를 했다.

최용득 목사의 사회로 이어진 축하식에서는 총재 전유성 목사와 대표회장 조석근 목사에게 각각 추대패와 취임패 증정되었으며 이어 취임사가



있었다. 또 직전총재인 이병진 목사

와 직전대표회장 서인원 목사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됐다.

총재에 추대된 전 목사는 "부흥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총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대표회장 취임한 조 목사는 "부담하게 활동하는 부흥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강호 목사(증경총회

장), 이윤구 목사(증경총회)의 격려사, 주남석 목사(기성부흥사회 대표회장), 정성문 총장(성결대 총장), 유흥옥 목사(증경총회)의 축사에 이어 고홍복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성 부흥사회는 2010년 주요 사업으로 전국 교회에서 연중 저비용 부흥사회와 강단교류 성회, 예성기성 연합성회등을 실시한다.

기성 스포츠선교연합회 대표회장에 이정익 목사 취임

스포츠로 교단과 교회 성장에 기여 '다짐'



지난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한층 더 스포츠를 통한 선교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대선교교회(총회장 권석원 목사)는 지난날 11일 스포츠선교연합회를 창립하고 대표

회장에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를 선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성결회관에서 대표회장 취임 및 스포츠선교연합회장 임박사에게 축하패를 드리고 그 동안 총회

에서 진행해오던 스포츠선교를 연합회로 통합하여 체계화 하고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날 예배는 조남국 목사(대표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최건호 목사(교문, 기성 증경총회장)의 '복음 선교의 다양성'이란 제목의 설교에 이어 백정용 목사(교문, 기성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정익 목사는 취임사에서 "교회 성장에 스포츠 선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스포츠선교연합회 가입으로 활발한 스포츠 선교활동을 펼쳐 교단과 교회 성장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